

10315 이견무

오늘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아마 시간이 미리 쏠이었던것 같다. 거의 평일이 학교가는 시간과 비슷했었다. 이렇게 일어난 이유는 토요일날에는 놀기만 하고 학원숙제를 하지 않아서다. 그래서 오늘 아침 숙제를 일찍 끝내주고 오후엔 친구들과 놀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평소와 다를 것이 아침밥을 먹고 30분정도 쉬더니 바로 제학대로 출행했다. 의외로 할일이 많아서 집중이 잘 안될었다. 다음엔 각질을 다른게 짜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루에 분과목, 두과목 정도로 조금씩정도로 알아라.

이제 됐든,

내가 할일을 3시까지 정돈한 후 다뤄진 못했지만 내 반 친구들과 함께 노력이 가서 놀거은 하였다. <sup>원</sup>노력이있는 신발가게를 들어가서 신발을 돌려오다가 마땅히 이쁜것이 없어서 나왔다. 그러곤 또다른 신발가게에서 신발을 신뒤 포장함에 친구와 얘기도 나누고 줄러 놀다가 각과 집으로 돌아갔다. 그이후엔 딱히 특별한일이 없다. 평소와 같은 하루였다.